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5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왕과 연대기 비교 및 대조, 공관 문제

F. 왕과 연대기

1. 역대기의 목적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

좋아요, "F" "Kings and Chronicles"로 넘어가겠습니다. “E”는 “신명기적 역사신학”이었습니다. “F”는 “왕과 역대기”입니다. “1”은 “목적과 신학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Kings는 기본적으로 회고적입니다. 즉, 망명자들에게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되돌아본다. 이러한 강조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다윗 가문의 회복과 관련하여 희망의 전망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는 배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책의 주요 목적이나 강조점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하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땅에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회고적이라기보다 미래 지향적이다. 역대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들을 강조합니다.

Archer는 *서론(389페이지)*에서 "이 책의 강조점은 앞으로 있을 재건 작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건전하고 유효한 내용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Archer는 또한 3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대 기자의 목적은 히브리 민족의 참된 영광이 성전에서 규정된 예배 형태로 보호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직분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성하게 조직된 다윗 왕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특히 유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가계, 왕들, 제사장 사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은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의 왕권입니다. 이는 역대기상 1-9장에 나오는 족보 자료를 보면 처음 부터 분명합니다. 1장은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계보를 추적합니다. 그 다음 즉시 추적되는 첫 번째 지파는 유다이며, 이는 2:1에서 4:23, 102절까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는 다윗의 집이 강조되며, 3장 전체가 그의 세대를 추적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르우벤, 10 절; 갓, 5절; 므낫세 동편, 2절; 잇사갈, 5; 댄, 11세; 납달리, 2절; 서쪽 므낫세, 6; 에브라임, 10; 그리고 애셔, 11.

북방 왕들은 남왕국의 상황과 관련해서만 언급됩니다. 북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역대기에는 그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윗 자신의 통치는 역대상 10-29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 다윗의 통치는

약 20장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에는 가족 문제와 다윗의 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2~20장에만 나옵니다. 그 대신, 그의 군사적 패권과 종교적 관심사,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올바른 기반 위에 놓으려고 시도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큰 관심과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신권 왕의 *탁월한* 모범으로 제시되며 (대상 17:14, 25, 29, 23), 그는 아모스, 이사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실 다윗의 더 큰 아들의 모형으로 간주됩니다. , 예레미야, 에스겔.

역대기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강조점은 "보복 신학"이라고 불리는 용어입니다. 그 개념은 단순히 죄가 심판과 순종을 가져오거나, 의가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모세 언약의 핵심이다. 이는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조의 의도는 모세 율법의 의식적 요구 사항에 대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도록 장려하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주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다윗의 약속도 배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세 언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세 언약이나 열왕기의 시내 언약, 그리고 역대기의 다윗 언약을 강조하지만 다른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언약 순서에는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지만, 약속된 언약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며, 율법 언약에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주는 시내산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재의 이행이다. 즉,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유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가 포기되거나 파괴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아서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저주가 있다고 해서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내산 언약의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며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약 언약의 신학에서 상충되는 조건을 찾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 책의 메시지와 구약 언약의 통일성을 왜곡합니다. 두 책 모두 약속과 율법의 강조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명기적 역사와 폰 라드가 이 언약들 사이에 긴장을 설정하는 개념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둘은 함께 작용합니다.

특별히 선하지 않은 몇몇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이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반대쪽 도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 심판이 임할 수도 있지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당신도 그 작품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2.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의 공관복음 문제 , “2” “공관복음 문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병행 기록으로 많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의 목록은 Young의 *구약 소개*, p. 395, 또는 당신의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Crockett의 *Harmony of Kings, Chronicles, and Samuel 에* 있습니다. 종종 역대기의 구절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종종 역대기의 유사한 자료 배열은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두 텍스트 사이의 일치이 거의 단어 그대로입니다.

역대기가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자 구약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그 구절들이 모순되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일치, 심지어 갈등이 발생할 때, 한편으로는

단순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 열왕기나 역대기의 역사적 신뢰성을 훼손하는 접근 방식에 빠지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는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데이터를 고려할 때 열왕기나 역대기 또는 둘 모두의 텍스트 전송 시 손상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의 숫자와 열왕기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Young의 소개에 있는 토론을 참조하세요. 두 책 사이의 숫자 차이는 가장 눈에 띄는 불일치 지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자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 서술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낮은 견해를 채택하게 만든 다른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일치가 의심되는 모든 사항이나 심지어 불일치가 발생하는 위치를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Hailey의 *Alleged Discrepancies in the Bible* 과 같은 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9장 11절과 역대상 8장 2절 사이의 갈등 그러나 그러한 예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Kuitert 는 자신의 책에서 *읽은 것을 이해합니까?* 14-1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어도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합니까?” 분명히 그에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어났지만, 어떤 것들은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개의 성읍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도시들은 갈릴리 북쪽 도시들이었으며 솔로몬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8장 2절에서 우리는 히람이 이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주었음을 발견한다.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갈릴리 성읍 스무 개를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히람이 그가 원하는 백향목과 소나무와 금을 다 그에게 주었음이라.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려고 두로 에서 왔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 마을들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는 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NIV 노트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아무 쓸모도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역대하 8장 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히람이 자기에게 준 마을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Kuitert가 계속하는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 그는 "이 삽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삽화와 다른 여러 삽화를 주었지만 그것은 왕과 역대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삽화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열왕기의 작가와 역대기의 작가 중 어느 작가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역사적 정확성에 관심을 둔다면 두 작가에게서는 그 정확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서의 모든 필자가 사건을 발생한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텍스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NIV* 연구용 성경 열왕기상 9장 11절에 내가 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지불을 규정한 원래 계약(5:9 참고 참조)에서 예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5:6에 있고, 나무는 5:10-11에 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서 목재와 노동 외에 많은 양의 금도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11절에 보면 히람이 그에게 백향목과 소나무와 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8장 1-2절은 나중에 솔로몬의 금 보유량이 늘어났을 때(아마도 오빌의 착취가 돌아왔거나 스바 여왕의 방문이 있었을 때) 그가 히람에게 빚을 청산하고 20금을 회수했음을 가리킨다. 도시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한때 히람에게 20개의 마을을 주었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을을 돌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할 때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나는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기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이 금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보낸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9장 14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시들이 금에 대한 담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요점은 모순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중 어느 하나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 진술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두 책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야 할 종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보나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약의 신뢰성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이러한 종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어적인 태도 없이 쉽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붙잡기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문제로 남겨두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둡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부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멀리까지 갈지는 조심하세요. 연대기 작가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경우, 역대기 기자는 그 도시가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반면, 킹스는 자신에게 이런
 쓸모없는 도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복음서 기록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을 한 관점에서 다루고 누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동등하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고 단순한 조화를 제공하는 것보다 몇 가지
 어려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공된 이러한
 단순한 조화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 *ICBI 업데이트*라는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무오성에 대한 국제협의회였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성경무오성의 원인을 홍보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뉴스레터는 *업데이트(Update)* 라고 불렸으며, 그 내용에서 Norman Geisler는 Kenneth Kantzer가 친구의 죽음에 관해 목격자로부터 두 건의 보고를 받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구약 역사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그녀는 길모퉁이에 서 있다가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으며,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 : 그녀는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충돌했고, 그녀는 차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Geisler는 두 보고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로부터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모순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모순적입니다.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Kantzer는 왜 우리가 목격자를 신뢰해야 하며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기본 원칙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고, 버스에 치였고,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인 자동차 운전자가 그녀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차가 충돌했고 그녀는 차에서 던져져 즉시 사망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배경을 모른다면 그것들을 보고 모순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훈은 목격자들이 갈등을 겪을 때에도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문제의 역사성을 부인함 우리는 성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2000년 이상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손실되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명백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을 제안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증거 없이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특정 어려움을 방지해야 합니다.

후자의 유혹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성경 부분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사이에 자의적인 구별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일단 그 길을 시작하면 분리하여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은 그렇지 않았습시다."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미끄러운 경사면" 주장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는 유효한 접근 방식이 아니며 최종 결과는 진실의 상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택하려면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들은 단지

사소한 세부 사항일 뿐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수들보다 이 분야에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갔고, 3세대가 되자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 관점을 유지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불일치화

에 관한 Dillard의 기사 레이 딜라드(Ray Dillard)가 The Chronicler's Theological Method의 그의 *기사* “An example of the Chronicler's Theological Method”에서 비록 주저하기는 하지만 제안한 것처럼 보이는 입장과 관련하여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학회지*, 23권. 읽어보신 분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의 예이자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이가 자신의 글에서 타당한 질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는 성경 역사의 저자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론적으로 위험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 오류를 활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말로 나오지 않고, 질문을 통해 암시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가장 많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사를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제가 기사를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역사비평적 방법을 활용하여 극단적으로 취한 방법론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비연대기화'가 모호할 때와 연대순 오류가 명백하고 잘못된 경우 사이의 구별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성경 서술의 역사적 오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이것이 이 연대기화 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때로는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은 성경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든,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종류의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모호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가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그가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연대기화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료를 재배열하여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다음 일이 일어났다가 그 순서대로 일어난 방식이 아닌데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적 오류를 초래합니다. 제가 보기엔 Dillard의 기사를 보면 Chronicler가 그런 종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llard의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이러한 공관적 문제가 있으며 사무엘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공관복음 문제가 있고, 복음서에서도 공관복음 문제는 일종의 긴 토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일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두어야 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유인물의 끝입니다.

신명기 역사의 2단계에 대한 McConville의 분석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맥콘빌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McConville은 신명기의 역사에 이중 또는 이중 편집이 있음을 시사하는 열왕기의 구성에 관한 현재 이론과 상호 작용합니다. 원래

신명기의 역사는 요시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본은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지만 그것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것입니다. 신명기의 제2판은 포로기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편집자는 당신이 발견한 부정적인 강조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은 이중 편집입니다.

McConville은 저자가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왕권에 결함이 있고 궁극적으로 추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마저도,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아의 개혁을 생각할 때 그 개혁조차도 실망스럽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열왕기 전반에 걸쳐 실제로 나타나는 질문은 어떤 왕이 정말로 어떤 종류의 영구적인 구원이나 축복, 구출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죄에 대한 질문과 인간이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 수 없는 타고난 무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어떤 일을 설정하셨고, 그것이 열왕기의 저자가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가 그 목표에 딱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것은 특히 선지자서에서 발견한 내용에 대한 일종의 배경이거나 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고 그들이 묘사한

왕국의 하향 나선형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에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이 나타나 이상을 이루고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처녀의 후손이 될 것이며 “우리과 함께 계신 하나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열왕기 자체의 내용에 들어갈 때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할 말이 많고 열왕기에는 더 자세히 설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